

제 1회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크리스토퍼 J.코인 · 피터 J.벳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1년 4월 25일 경남 창원시  
울타 스테디카페 석전동

2 방법론적 원칙들

연구의 대상은 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사정이 그러하다는 단언적인 선언으로,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강력한 감정으로, 그의[사람의] 의식의 과정들의 모든 정확한 서술을 확증한다. -중략- 자연 과학들이 오직 증명만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경제학의 이론은 설득할 수 있다. 그것은 독자들의 무조건적 내면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경제학은 인간에 대한 것이다.

경제학이란 학문도 자연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계 효용 분석에 따라서 경제학을 고쳐 만들 때, 카를 멩거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뚜렷하게 하는 것의 기초에 있는 방법론적 원칙들의 독특한 집합을 제공했다. 이 원칙들은 경제학의 핵심 목적에 근거하고 있는데, 후자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깨달음이다. 게다가, 자기

들의 목적이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경제학자들은 검토 중인 사건들을 목적 있는 인간 행동의 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비록 틀림없이 자기들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조건 지워질지라도, 오직 개인들만이 결정에 직면하고 선택을 한다는 인식에 이른다.

경제학은 인문학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경제학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선택의 주체는 결국 개인이다.

사회 현상은 경제학자가 그런 현상을 개인 결정들로 거슬러 올라가 찾을 때만 이해될 수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개념인데, 후자는 자기들의 독특한 목적들과 계획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경제 분석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individual :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독자(각 개인들은 신의 형상)"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개인들을 목적들과 계획들을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만이다. 경제학의 정리들 - 즉, 한계 효용과 기회비용의 개념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 - 은 모두 인간 행동에서의 합목적성을 숙고함으로써 도출된다.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단지 익명으로 "인간(human)" - 즉, 자유롭게 선택하며, 이용 가능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재조정함으로써 자기들의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존재

들 - 으로서만 안다. 우리는 “나머지 사람(the other)”의 목적 있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각각의 목적들이 빠르게 교환된다.  
정부가 하는 일은 목적이 있지 않다. 단지 세금을 쓰기 위한 목적이다.

인간 현상들의 연구에서 인간성(humanness) - 사람들의 목적, 계획, 그리고 불완전 -을 제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행사는 인간 과학들의 만유 기계론(mechanomorphism) - 즉, 창조적인, 선택하는 인간 주체들에 기계적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 을 초래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결국 로봇들의 경제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고 인간들의 경제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경제학은 더는 인간 과학이 아니다.

로봇이란 비인간적인 것을 뜻한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에게, 인간들의 주관적인 본질은 모든 경제학 측면들에 침투한다. 인간 과학들의 “사실들”은 자연 과학들에서처럼 객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두 사람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

경제학자 앨프레드 마셜은 시장(공급과 수요)을 가위의 양날에 비유했다. 양 가위 날이 좋은 장을 자르는 것과 똑같이,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비용이 시장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 견해는 비용의 주관적인 본질을 간과하는데, -중략-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을 객관화하려고 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 된다.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는 특정 행동을 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최고로 평가되는 포기된 대안의 가치를 언급한다.

기회비용의 통상적인 정의는 사람들이 경제학적 선택을 할 때,  
비용적인 고려만 할 것이라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베버는, 사회 과학이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분석과 특정 입장들의 옹호나 개인적 가치 판단들의 제시 사이에 명백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치성 (Wertfreiheit) - "가치 자유(value freedom)" - 이라는 베버의 교리는 미제스에 의해 경제 과학을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기초 원칙으로서 채택되었다.

경제 과학이 가치 자유적이지만, 그것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후속 장에서 논할 것이지만, 사유 재산권 체제하에서 교환과 경쟁의 과정은 인간 복지 개선들의 기초에 있는 발견(discovery)에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주관적 거래들이 빈번하여 객관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발견"이다.